광주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비 건립 '뒷짐'

작년 북구 운암 2동 주민 추진 사업 市가 가져와

지금껏 예산 편성조차 않고 소극적 태도 일관

광주시가 추진중인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비(노래비) 건립사업이 겉돌고 있다.

광주시가 사업의 상징성·역사성 등을 감안, 직접 챙기겠다며 운암 2동 주민들 주도로 시작됐던 사업을 가져와 놓고도 1년 넘게 예산 책정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국가보훈처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부 세력의 왜곡 움직임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적극 알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남의 일'보듯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북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운암 2동 주민 주도로 추진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비 조성 사업'을 직접 맡아 추진키로 결정해놓고 1년 넘게 사업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북구는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비와 쉼터 조성 사업의 의미 등을 감안, 광주시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에 사업 추진을 맡겼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후 기념비 건립 장소 등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씨와 기념비 설치 장소와 관련, "옛 전남도청에 설치하는 게 낫겠다"는 수준의 협의만 진행했을 뿐 3000만원 가량의 건립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등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정부가 '국론 분열' 등의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암 2동 주민들은 지난해 4월 북구 문화예술회관 후문에 3000만원 예산을 투입,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건립 사업을 계획했었다. 이 지역은 예전 소설가 황석영씨의 집터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이 쓰여졌고 최초로 녹음된 의미도 담겨 있는 장소다. 주민들은 애초 지난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주민들 계획대로라면 진즉 마무리가 됐을 사업이 광주시가 떠안은 뒤 되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문제가 논란이 돼 (기념비 건립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았고 시민들의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해결되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센인 낙태·단종 국가상대 손배訴 오는 17일 첫 선고

단종(斷種). 정관이나 자궁관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막아 생식 능력을 없애는 일로, 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벌어졌었다. 이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한센인권 변호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자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소록도병원 등에서 이뤄진 강제 정관수술이나 강제 낙태수술 피해자들로, 남성 9명, 여성 10명 등 19명이다. 배상 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1억원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님에도, 국가는 일제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1980년대 초까지 한센인들에게 낙태와 단종을 강요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한센 인권변호단 장진범 간사는 "'한센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한센병 회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강제 단종, 낙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정당한 배상 촉구를 위해 국개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복사꽃에 취한 여심 한 낮기온이 25도까지 오른 14일. 나주시 산포면 한 과수원에 분홍의 복사꽃들이 화려하게 만개해 봄 정취를 한껏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광주 고교배정 올해처럼 성적등급 반영

시교육청, 선지원 40%·후지원 60% 추첨·배정…선택 고교 늘려 불만 최소화

내년도 광주지역 고교배정도 올해와 같이 중학교 성적 등급을 반영해 시행된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고입 배정방식의 선지원·후지원 비율과 방식 등은 올해 기본계획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지원에서 정원의 40%를, 후지원에서 정원의 60%를 추첨·배정한다.

선지원에서 2개교를 반드시 선택하고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성적 등급별 추첨 배정하며, 미달 인원을 후지원에서 보충한다. 후지원은 중학교 배정가능고교 중 60%(최대 9개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반드시 선택하고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역시 성적 등급을 고려해 배정한다.

성적등급은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내신성적 산출은 총점 300점에 교과성적 80%, 비교과성적 20%를 반영한다.

교과성적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이며, 출석·행동발달·체험활동·봉사활동 등 비교과 성적은 1·2·3학년 동일 비율로 산출한다.

올해부터는 성취평가제 시행에 따라 학생 석차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해 석차를 내고 이를 3등급으로 나눠 배정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배정 결과 강제배정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학생 선택권과 성적을 고려한 평준화 정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고교배정에서 강제배정 인원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의 선택가능 고교를 강제로 늘려 거리가 먼 학교임에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배정가능고교가 적은 곳의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8월 내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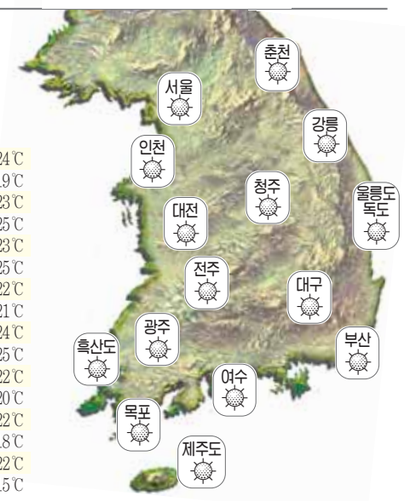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1분 해짐 19시 05분 | 달뜸 19시 07분 달짐 05시 46분

미세먼지 '보통'

출근길 안개 주의

광 주	맑음	8/24℃
목 포	맑음	7/19℃
여 수	맑음	11/23℃
나 주	맑음	5/25℃
완 도	맑음	9/23℃
구 례	맑음	6/25℃
강 진	맑음	4/22℃
해 남	맑음	5/21℃
장 흥	맑음	4/24℃
순 천	맑음	10/25℃
영 광	맑음	6/22℃
진 도	맑음	5/20℃
전 주	맑음	8/22℃
군 산	맑음	6/18℃
남 원	맑음	5/22℃
흑산도	맑음	8/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북서~북	0.5~1.5m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2:08 14:18	07:25 19:36
여수	03:00 15:04	09:08 21:3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 씨						
최저/최고	10/24	11/18	14/20	12/19	12/18	10/19

목·금 '비'…초여름 날씨 한풀 꺾일 듯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날씨가 한풀 꺾인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이번 주 광주·전남 지역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3~11도, 최고기온 18~21)보다 높은 가운데 목요일(17일)과 금요일(18일) 사이에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5·16일 광주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보됐다.

더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 오전부터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그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행기자 golee@

조선대 법인이사회 강현욱 이사장 재선임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1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2기 이사회 이사장에 강현욱〈사진〉씨를 선임했다.

이사회는 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이사회 이사장이었던 강현욱 이사에 대한 이사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투표 전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전임 이사장을 신임 이사회에 또 뽑는 것을 놓고 1시간여 동안 논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이사장 선임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감사 선임과 이공대 총장 선임 등 주요 현안 업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 출신인 강현욱 신임 이사장은 환경부 장관과 농림수산부 장관, 15·16대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조선대 이사장을 맡아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